

다시 열리는 부산하늘... 김해공항 국제선, 내달 3일 운항

부산시 부산~칭다오 주1회 운항 기관·지자체와 입국재개 노력 특별검역절차·대응시설 구축



지난 4월부터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됐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편이 내달 3일부터 허용된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됐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편이 오는 12월 3일부터 허용된다고 15일 밝혔다.

노선은 현재 에어부산이 운영 중인 부산~칭다오(주 1회)로 시작하고 향후 대응체계 운영상황 등을 평가해 추가 증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역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해외발 확진자 유입 등을 감안해 지난 4월 6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를 오가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및 관련 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질병관리

청·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김해공항 입국 재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결과 지난 9월 8일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해외입국 상황평가회의'에서 부산발 출국편이 허용됐다.

다만 정부는 입국편의 경우 인천공항과 유사한 입국자 대응체계(수송·진단·격리)를 지자체 주도로 운영 가능한 경우에만 재개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국립김해검역소, 한국공항공사, 경남·울산 등 지자체와 김

해공항 입국자 대응계획을 마련해 입국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현재 각 지방공항 검역인력의 대부분이 인천공항, 부산항 등으로 파견 중이라 김해공항의 검역인력 확보가 어려워 입국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개최된 중대본 회의에서 부산시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현재 파견 중인 김해공항 검역인력 복귀만이라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으며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역민 편의

를 감안해 김해공항 입국 재개 협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려 관계부처 간 긴급회의가 열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회의에서 검역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김해공항에 인천공항과 유사한 특별검역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군,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인력지원과 한국공항공사의 대응시설 확충 등을 요청했으며 해당 기관들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마침내 김해공항의 입국 재개가 결정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김해공항의 국제선이 섰다온된 상황으로 관련 산업의 어려움과 시민 불편이 계속돼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향후 인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입국자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농사용 폐반사필름지 수거 현장. /안동시

안동시 폐반사필름지 집중 수거

안동시가 농민들의 과수 수확기를 고려하여 오는 16일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농사용 폐반사필름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사용 폐반사필름지를 마대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바람에 날려 잦은 정전사고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집중 수거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길안면 등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 수거장비를 집중 투입해 12월 중으로 수거를 마칠 예정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전남도, 호남고속철도 시공사 선정 "연내 2단계 착공"

43.9km 구간 7개 공구로 나눠 추진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 육성



무안국제공항

전남도는 국가철도공단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시공사를 선정해 올해 연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공사가 완공되면 호남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고,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전체 구간 중 미연결로 남아있던 나주 고막원부터 목포 임성까지 43.9km 구간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7개 공구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총 7개 공구 중 탄기방식으로 추진한 3개 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지난 13일 선정됐다.

각 공구별 적격자는 ▲2공구(함평 학교읍~무안읍) 동부건설 ▲4공구(무안 현경~망운면) 대림산업 ▲5공구(무안 망운~청계면) 태영건설 등으로 이들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업체들은 입찰시 제출한 우선 시공분(패

스트랙)에 대해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일반 공사로 발주된 1·3·6·7공구 등 나머지 4개 공구도 오는 24일 개찰된다.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이뤄진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무안공항 주변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항역의 동선을 공항과 일체화시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동안 호남고속철도는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전체 구간 중 1단계 충북 오송부터 광주 송정까지 182.3km 구간은 지난 2015년 4월 신설 철도로, 2단계인 광주 송정부터 고막원까지 26.4km는 기존선을 개량해 지난해 6월 개통됐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2단계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무안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

전남 무안군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농가부담을 덜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보조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군의 재해보험 가입은 지난달 31일 기준 벼와 콩, 고추 등 18개 품목에 대해 4804농가, 6520ha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농가, 32ha가 증가한 것이다.

보험가입자 중 현재까지 농업재해 피해로 보험금을 받는 농가는 881농가 332ha로 지원된 보험금은 18억1000만원에 달한다.

군은 경영안정과 작업시 상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재해보험 등에 3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국악인 등용문 '임방울국악제', 20일 개막 "경북 4차 산업혁명기술, 직접 확인하세요"

광주시 7개 종목, 72명 시상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8곳서 진행



임방울국악진흥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등 8개 경연장에서 '제28회 임방울국악제'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임방울국악진흥회

전남 국악인의 등용문으로 통하는 광주임방울국악제가 20일 막을 올린다.

광주광역시 15일 제28회 임방울국악제가 20일부터 2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8곳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임방울국악제는 광주가 낳은 국창 임방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개막 첫날 국창 예술혼 모시기와 전야제 축하공연, 판소리 장기자랑 등을 시작으로 ▲21일 학생부 판소리, 기악(관악, 현악), 무용 부문 ▲22

일 일반부 판소리, 농악, 기악, 무용, 시조, 가야금병창, 퓨전국악 등 7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시상은 모두 72명이 받게 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경북도 4차산업 기술대전 온라인 전시

경북도가 오는 16일 온라인 전시관 오픈을 시작으로 '2020 경북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의 문을 연다.

본격적인 행사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TV방송, 온라인 플랫폼 및 유튜브 등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전시관은 이후 1년간 상시 운영된다.

'경북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술대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북도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홈페이지에서는 42개 업체가 자율

주행, 인공지능, 스마트팜 등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제진흥원 등 경북 유관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표사업을 소개한다.

전시 외에도 3D펜 아트로 제작하는 독도, 최대로 SNS 시인과 AI가 함께하는 시작(詩作), 크리에이터들의 체험관 렌선투어 등 4차 산업기반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된다.

문화예술 공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연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돼 문화와 기술이 융합되는 비대면 행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퀴즈, 2행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수비면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준공 사진

영양군 수비면작은도서관 재개관

영양군은 수비면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 준공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수비면작은도서관은 건물 보수, 서가 등 비품 교체 등을 통해 재탄생되었다. 원목목재 가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늘어나는 책으로 부족했던 책꽂이 공간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분야의 신간도서도 추가 구입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